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어린이주일 메시지

어느 한 아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요 6:9)

벧세다 광야에 모인 수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온 병자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아닌 건강한 남자 장정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배고픈 장정, 무기력한 장정일 뿐 모인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기 이름도 나이도 알려져 있지 않고 뉘 집 아이라는 것도 소개되지 않은 한 아이가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5천명 속에 끼지 못한 ‘한 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 광야에서 기적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5천명의 장정이 아니라 그들 속에 낄 수조차 없는 바로 이 아이였다.

인류 역사상 경이적인 일들이 종종 수에 칠 것도 못 되는 소외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뻘근하게 만들어 준다.

시간은 석양, 장소는 광야, 주인공은 한 아이, 군중은 장정만도 5천명, 재료는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결과는 경이적이다. 물론 기적은 이 아이가 베푼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러나 주님으로 하여금 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든 장본인은 이런 큰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한 아이였다.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이 좋은 나이에 그 많은 은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 주변에 이렇다 할 변혁 하나 일으키지 못하니 말이다. 선택받은 소수 속에서 특혜 인생을 살면서도 도리어 수에도 들지 못하는 등외품 인생에 의해 구제되어야 하는 자신은 배고픈 장정 풀이 아닌가?

어린이 주일에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기도한다.

“주여, 무력한 5천명 장정보다 자기를 희생한 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이중윤 원로목사



노송성 은퇴장로 혐의 없음 처분

이종윤 원로 목사의 교회 사택 구입에서 담보설정건 / 이종윤 목사의 개인 은행 계좌가 없어 홍순복 사모 계좌로 들어간 목회연구비는 정상적 절차에 의한 것

문서확인번호 2152-5330-9492-6500 발행번호 2-210-2018-88515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분류번호 및 수신 내용 제목 불기소이유동지	2018. 5. 3. 발신 서울중앙지방법청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건 번호	계주지방법검찰청 2017 형제29227호
② 고소인 성명	홍순주 외 6명
③ 성명 (피의자) (고소인)	노송성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죄명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업무상배임
⑥ 처분결사	불기소
⑦ 처분년월일	2018. 4. 30.
⑧ 처분요지	가,나-혐의없음(중기불충분)
⑨ 불기소이유	별지 참조
⑩ 비고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지난 4월 30일, 홍0주 외 6인이 노송성 은퇴장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다.

홍0주 외 6인은 이종윤 원로목사 사택구입과정에서 부족한 대금을 오정수 은퇴장로에게 빌리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회 사택을 구입하기 위해 오정수 은퇴장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당시 교회 장로들과 사무국 실무자들이 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유서의 진술, 이 사건 근저당 설정과 관련하여 의결을 거쳤다는 내용의 임시 당회 회의록은 노송성 은퇴장로의 주장에 부합한다.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된 자료 등에 의

유태서 사무국장 무혐의

이종윤 원로목사 사택 구입을 위한 임시 당회록조작 없었다

홍0주 외 9인이 이종윤 원로목사 사택 구입 임시 당회록을 조작하였다고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유태서 사무국장을 고소한 건에 대해 이미 2017년 6월 2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면, 오정수 은퇴장로는 서울교회에 수 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 설정과 관련하여 의결을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노송성 은퇴장로는 서울교회 재산의 가치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고소장에 임시 당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였으나 위 부분은 2017. 2. 2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고소인 측에서도 위 부분은 본건 범죄사실에 대한 경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고소혐의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함)

또한 홍0주 외 6인은 노송성 은퇴장로가 임의로 서울교회의 직원이 아닌 홍순복 사모에게 매월 90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서울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노송성 은퇴장로는 당시 담임목사인 이종윤 목사에게 말씀봉사비, 목회연구비의 항목을 급여를 지급한 것인데, 이종윤 원로목사의 계좌가 없어 아내인 홍순복에게 매월 900만원을 지급한 것이고, 위 지급 절차에 대해 정상적인 결재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말씀봉사비, 목회연구비 명목으로 나누어 월급 9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종윤 원로목사의 진술, 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의 결재를 거쳐 교회자금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의 대체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의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증거들 및 관련 기록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이종윤 목사에 대한 월급 900만원은 정상적인 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주장이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서울교회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문서확인번호 2149-7806-9815-7400 발행번호 2-210-2017-116556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분류번호 및 수신 내용 제목 불기소이유동지	2017. 6. 14. 발신 서울중앙지방법청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7 형제48769호
② 고소인 성명	홍순주 외 9명
③ 성명 (피의자) (고소인)	유태서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죄명	가.사문서위조 나.위조사문서행사
⑥ 처분결사	불기소
⑦ 처분년월일	2017. 6. 2
⑧ 처분요지	가,나-공소권없음
⑨ 불기소이유	별지 참조
⑩ 비고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홍한규/ 모양순 박연옥곽선자 정인건/남영주 송정윤
윤요섭/안재희7 유운순 정수길 유초등부교사일동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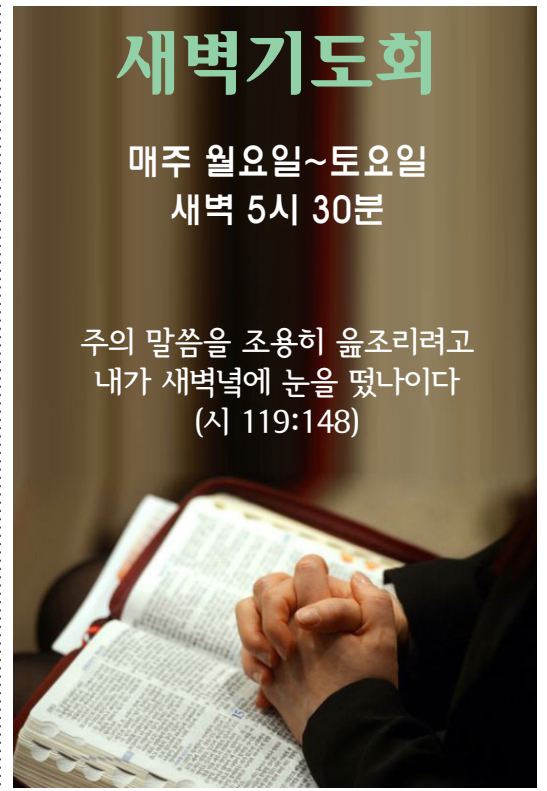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찬양예배 전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이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가장 큰 무기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새벽기도회

매주 월요일~토요일
새벽 5시 30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 119:148)





자녀를 위한 기도

주님
언약의 자손된 저들 위에
대지를 적시운 이슬 같이
맑고도 신선한 은총 펴사
새 영을 날마다 부으소서



주님
천국의 자녀 된 저들 위에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희망과 권능의 은사 주사
광명의 새 시대 맡기소서



주님
우리 집 보배 된 저들 위에
하늘별 바닷모래 반짝이듯
평강 왕 메시아 복 내리사
온 세상 빛 되게 하옵소서





만민에게 전도 - 인도 선교 보고

도전과 기회!



지금 선교의 현실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기독교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추방하고, 박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화된 힌두교와 이슬람교는 온갖 폭력과 살상을 자행하며 기독교를 억압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선교하는 우리를 바보라고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참된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더욱 더 강해져 갑니다.

1. 나갈랜드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 현재 약 70여명의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성도약을 위해 힘쓰는 중입니다.
2. 나갈랜드 신학교 야외 화장실/ 2층 신축공사 마무리 진행 중
3. 콜카타 어린이 선교 시온교회서 성찬-세례식 집행

4. 교회완성

- (1) 하나님의 성회 선교하는 Church (김도형장로 후원, 카트전도사, 50명 회집)
- (2) 단시리 (침례) Lifewell (생명샘) Church (김용숙 권사 Kim Yongsuk 후원, 티모티 전도사, 50명 회집)
- (3) 나하바리 (침례) 선교하는 Church (황지운 어린이 후원, 사무엘 치시 목사, 60명 회집)
- (4) 암란잔 선교하는 Church (권민준 어린이 후원, 킹레이만목사, 100여명 회집)
- (5) 트리니티 김희선장로 기념교회 (존 체트리목사, 100여명 회집)

5. 결어

인도선교는 내외적으로 도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모디 총리로 대두되는 힌두정권의 탄압에 의한 기독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라고 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기독교회 내에 완전한 부정과 부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도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구속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선교의 명령을 망각한 채로, 습관적이면서 세속적인 종교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깨우고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인도선교는 힌두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항거함과 더불어 교회 내의 정화운동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인도선교회를 통해서 2곳의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를 통해서 출중한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 신학교에서 조병연 선교사가 드립니다.

동정

- 출간 : 12교구 정병무 장로 신앙간증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도서출판 비움과 채움
- 수상 : 12교구 오영숙 권사 『글로벌 어머니상』 글로벌 뉴스통신

금주의 식사: 짜짱밥

김선영 권사, 전화진 권사 (범사에 감사)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6일	주일	대상 10-12		겔 37-42	
5월7일	월	대상 13:1-16:36		겔 43-48	
5월8일	화	대상 16:37-20:8		단 1-5	
5월9일	수	대상 21-23		단 6-12	
5월10일	목	대상 24-26		호 1-14	
5월11일	금	대상 27-29		을 1-3, 암 1-4	
5월12일	토	대하 1-5		암 5-9, 읍, 윤 1-4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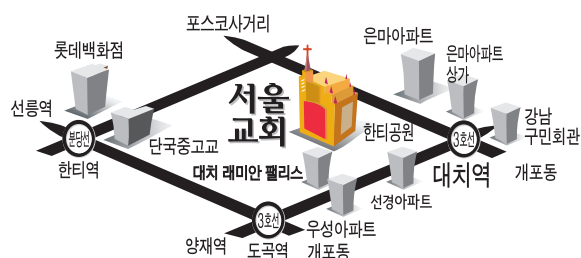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모든 죄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2. 교회 회복과 관련된 모든 송사가 법과 진실을 토대로 바르게 진행되게 하소서.
3. 4월 27일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비핵화를 통한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